

2 부 ... 담대하게 인생난관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쉽고 안일한 길로 이끌지 말고
오히려 곤란과 고통의 길로 인도한 후 그것을 돌파해 나오도록 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아는 강한 자녀가 되도록 연단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장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소서 (예레미야 12:1-6)

Lead him, I pray, not in the path of ease and comfort, but under the stress and spur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도전: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항거할 줄 아는 용기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 중 “그(내 자녀)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 하소서”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문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이 안쓰러워 무조건 편안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하려고 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데 자녀를 온실 속에서만 키워
험난한 세상에서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무능력자로 키우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랑으로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저는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단 하나 요구하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탐스럽고 욕심나는 선악과를 택하여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치 않고 욕심을 따라 살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점점 신앙과 삶의 문제가 결국 '선악과의 문제' 라는 것을 느낍니다. 생명과 승리와 성공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기 입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보이며,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불의한 세상에 항거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였던 본회퍼는 '복종과 저항'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먼저 그리고 반드시 불의한 세상에 저항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저항할 줄 아는 용기 없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에는 믿음과 용기로

높은뜻송의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교육관과 사무실을 위한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교회가 자리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고 좋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건물을 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저는 은행대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던 상황은 거의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은행대출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의 심사팀과 미팅을 약속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커미션을 준다고 그러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사팀이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눈치도 준 적이 없지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왜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위해 커미션을 주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은행용자를 포기할 각오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관 없이 지내는 한이 있어도 그런 방법으로 교육관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우리 교회에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수십 억 원이나 되는 건물을 매입하려는 교회가 단 몇 억원도 모아둔 돈 없이 은행 용자로만 건물을 사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서를 기도하면서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두 장 정도의 설명서를 작성한 후 심사팀을 만나자마자 그것을 복사하여 나누어준 후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교회가 건물 매입과 예배당 건축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과 교회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쓰려고 했던 것은 최소한 예산의 1/3 이상을 선교와 구제를 통해 교회 밖으로 돈을 쓰는 것이었지 우리 예배당부터 짓고 건물부터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두 가지 정도 더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심사팀이 처음의 부정적인 결론을 뒤집고 대출 승인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리 교회는 예배당 짓고 건물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도전하여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너무 거창해보이지만 바로 본회퍼가 말한 '복종과

저항' 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세상 방식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작년에 교인 한 가정이 천안에 있는 아주 좋은 땅 4천 평을 수련원 용지로 교회에 기증해주셨습니다. 그곳에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가정사역과 바른 교회 운동을 위한 시설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로에서 우리 교회 부지를 가로막고 있는 양계장 2천 평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작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계장 주인이 자신의 일을 마무리할 시간을 위해 올 6월 말에 잔금을 받겠다고 하여 그렇게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이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곳의 땅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길만 있으면 해약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잔금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농지인데 농지는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안시청에 가서 알아보고 주위의 법무사 사무소와 행정 사무소를 통해 알아봐도 답은 같았습니다. 편법을 쓰기 전에는 교회 이름으로 땅을 등기할 길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련원을 건축하기 위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요긴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필요하고 욕심이 나도 편법으로는 사지 않는다.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 땅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릴 당시 인간적으로는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변호사 몇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이신 집사님 한 분에게 어느 장로님이 자문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 집사님이 천안 땅을 검토하다가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이 농지가 아니라 목장지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목장지는 농지와 다른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냈습니다.

천안시청 직원과 법무사 사무소 그리고 행정 사무소에서도 농지와 목장지는 같은 것인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등기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인데 농지는 안 되지만 목장지는 교회도 등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잔금을 다 치르고 주인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넘겨받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수련원 땅을 사고, 교육관 건물을 매입해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에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땅과 건물은 천천히 준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천안에 수련원 부지 6천 평이 생긴 것과 이번에 너무나 근사한 교육관과 사무실 건물을 계약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천안 땅을 등기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다가 천안 땅을 등기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성공은 천안 땅과 은행 대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정한 성공 위에 세상적인 성공도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기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세상 속에서,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가지 않겠다는 용기, 서울을 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세상 방식을 거슬러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저항하고
똑바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강한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 폭풍우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말과도
경주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용기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 속에서 세상 불의와 편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과 자신에 대해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것에 저항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여 죄악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의 자녀를 그런 믿음과
용기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이렇게 키워라 ...

1. 승리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 요구한 것이 순종이다. 선악과 금령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셨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치 않고 욕심을 따라
살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생명과 승리와 성공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 온다. 자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키워라.

2.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세상에 저항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보이며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불의한 세상에 항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항할 줄 아는 용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3. 자녀를 진정한 강자로 키우기 위해 폭풍우 속에서 연단하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있고 기백 있는 백성으로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나약하게 키우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키우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자녀를 폭풍우 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말과도 경주시키신다.